

해난사고조사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2018년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기술협조계획에 따라 두주간의 해난사고조사규칙리행에 관한 지역강습이 진행되었다. 강습을 필리핀해사당국이 주최하였다.

지난 시기에도 국제해사기구는 여러차례에 걸쳐 해난사고조사강습을 조직하였다.

강습의 목적은 해당 국가해사행정당국들이 해난사고 및 사건조사를 해상안전위원회결 MSC. 390(94)로 수정된 해상안전위원회 결의 MSC. 255(84)-《해난사고 혹은 해상사건안전조사에 관한 국제적기준과 권고적실행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협조하는데 있었다.

또한 해난사고조사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연단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사정책작성에 종사하는 기술 및 행정일군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며 조사원들이 의견교환을 적극 벌리도록 하자는데 있었다.

이번 강습에서는 해난사고조사와 관련한 국제해사법규들과 증거수집, 담화방법, 원인분석, 기구에로의 통보 등 해상안전조사와 관련한 여러가지 각이한 주제의 문제들이 취급되었다.

지역강습에는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2개 나라에서 온 33명의 해난사고조사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해사감독국 립성철과 김현철이 참가하였다.

강습에 참가하였던 립성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강습을 통하여 많은것을 알게 되었다. 배운 지식을 앞으로 적극 활용하여 해난사고조사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